

# 학교는 일반적 질서가 지배하는 곳이어야

교육의향

강경필

광주교육연구소 이사



볼테르의 '불온한 철학사전' 철학자 항목에서 가장 선구적이며 중요한 철학자로 언급되는 인물은 공자다. 서양의 기라성 같은 현자들이 공자에 앞서 철학자로 언급될 수 없었던 까닭은 그들이 자신의 자식인 양 행세 했기 때문이며, 그들은 고작 사기의 아버지였을 뿐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철학자가 아니며 고작 신중한 거짓말쟁이였을 뿐이라고 볼테르는 서술한다. 반면에 공자는 "경세가 이면서 결코 남들을 속이려 하지 않았던 사람"이라며 추앙한다.

공자가 대단한 철학적 체계를 완성한 사람이어서 볼테르가 상찬한 것이 아니라 그가 질서를 위해 어떤 가상에 기대지 않았음을 위대한 용기라고 생각한 것이다. 그러면서 인용한 논어의 구절들도 지극히 평범한 부분들이다. "가정을 다스리듯이 나라를 다스려라." "농부에게나 군주에게나 미덕은 공통된 것이어야 한다." 18세기 계몽주의자가 기원전 6세기의 공자에게서 감탄한 것은 저토록 단

순한 미덕이었다. 그리고 그 미덕의 배후에는 용기가 있음을 알아차렸기 때문이다.

공자는 스페셜리스트가 아니라 제너럴리스트였다. 공자는 자신에게 책임을 맡겨주기만 하면 어떤 나라든 빠른 속도로 안정화하고 번영시킬 수 있으리라고 장담했다. 하지만 그는 왕이나 제후들을 설득하는데 매번 실패한다. 그에겐 대단한 병법이나 무기가 없었다. 왕과 제후 입장에서 비책이 있는가 하고 공자의 말을 들어보면 너무나 평범하기 짝이 없는 소리만 반복했을 뿐이다. 게다가 복고주의자였다. 옛날에 했던대로 하면 된다고 하니 믿기 어려운 이야기였을 것이다.

학생인권조례가 위협받고 있다. 서울과 충남 의회에서 폐지안이 가결되었고, 광주 역시 폐지안이 시의회에 수리된 상태이다. 학생인권조례의 내용은 지극히 평범하다. 이미 논쟁의 여지 없이 수용되고 있는 권리들을 담고 있을 뿐이다. 남의 치마를 찢다고 밀단을 강제로 트거나, 남의 머리를 동의 없이 밀거나, 때리거나, 사랑을 금지하고, 종교를 강제하는 일이 가능한가? 그런데 남이 아니라 학생이 주어가 되면 가능하다고 믿는 사람들이 있다. 학생은 특수한 환경에서 억압받아야 하는 대상이 아니다. 사회에

서 보장된 권리가 학교 안에서도 똑같이 보장되어야 한다.

너무나 평범하고 당연하며 헌법에 보장된 권리가 학생인권조례로 만들어진 가장 큰 이유는 현실의 학교가 당연한 것들을 왜곡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공동체는 특수한 금기를 만들어간다. 그것도 공동체 내부의 현명한 사람을 통해서. 꽤 많은 공동체에서 연애를 명시적으로 금지한다. 학교 뿐만 아니라 회사나 동아리 같은 곳에서도 내부자들의 연애를 금지한다. 공동체를 지키기 위한 속고의 결과물이다. 하지만 밖에서 보면 이 얼마나 우스운가?

학교가 오랜 시간 동안 쌓아온 희한한 금기나 강제는 한발 밖에서 보면 부조리에 불과하다. 그러나 그런 부조리를 스스로 없애지 못하고 마치 비책인 양 그리고 그런 비책을 통해서 학력이 증진되는 것인 양 스스로를 속여왔기 때문에 학생인권조례라는 빛으로 그 부조리를 밖으로 드러내고 수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학생은 습기찬 금기 속에서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인권이라는 빛 속에서 성장한다. 학교와 사회의 질서는 동일하다. 이것을 부정하는 모든 일은 현실의 어려움을 알팍한 술수로 돌파하는 기만이자 사기다. 시기치지 않는 질서 그것이 위대한 질서다.

社說

# 공공성 강화해야 할 노인 돌봄 서비스

광주 공공 요양기관 한 곳 없어

노인 공공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공립 장기요양기관이 광주에 단 한 곳 없다고 한다. 전남 역시 22개 시·군 중 7개 시·군에 국·공립 장기요양기관이 없는 실정이다. 우리나라 전체 인구 가운데 65세 이상 비율이 20%를 넘는 초고령사회를 눈 앞에 두고, 노인 돌봄과 관련된 사회·경제적 비용이 해마다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상황에서 걱정스러운 일이다.

국회 남인순 의원이 최근 제출받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에 따르면, 광주를 비롯해 전남 전체 22개 시·군 가운데 목포와 곡성, 담양, 영광, 장성, 해남, 화순 등 7개 시·군에 국·공립 장기요양기관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나머지 15개 시·군에는 국·공립 장기요양기관 38곳이 운영 중이다. 특히 2021년 이후 3년째 전남에서는 국·공립 장기요양기관 신규 설립 사례가 없다고 한다. 전국적으로도 장기요양기관 2만 8868곳 중 국·공립 설립 요양기관은 0.9%인 256곳에 불과하다. 이마저도 서울에만 130곳이 몰려 지역

간 불균형이 심각하다. 반면 개인이 설립한 장기요양기관은 85.3%에 해당하는 2만 4628곳에 이른다.

고령화시대, 노인돌봄은 정부와 자치단체의 책임이 맞다. 노년층이 건강하고 품위 있는 삶을 살아가 수 있도록 돕는 것은 사회적 책임이다. 국가인권위원회가 노인 돌봄 서비스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국·공립 장기요양기관의 목표를 설정하고 구체적인 이행 계획 수립을 보건복지부에 권고한 것도 이 때문이다. 노인 돌봄을 민간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것도 문제다. 예산을 이유로 공공성이 훼손되면 민간의 의존도가 높아지고 노인 돌봄은 서비스 질 하락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정부는 공공 돌봄 서비스의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돌봄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인 돌봄과 관련된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 국가 차원에서 주도적으로 국·공립 시설 확충·운영해 공공 돌봄 서비스의 접근성을 높이는 것이 그 첫걸음이다. 정부와 자치단체, 시민사회가 결합한 '돌봄 공동체 구축'도 고민해야 한다.

# 부실한 잔디로 국제대회 못 치러서야

광주FC, 용인으로 경기장 변경

프로축구 K리그1 광주FC가 홈 경기장 잔디 문제로 아시아축구연맹(AFC) 챔피언스리그 엘리트(ACLE) 경기를 용인미르스타디움에서 치르게 됐다. 6일 한국프로축구연맹에 따르면 오는 22일 오후 7시에 예정된 광주FC와 조호르 다룰 탁짐(말레이시아)과 2024-2025 ACLE 리그 스테이지 3차전은 광주월드컵경기장이 아닌 용인미르스타디움에서 열린다. AFC가 광주월드컵경기장의 잔디 상태가 경기를 치를 수 없는 수준으로 다른 경기장을 써야 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광주월드컵경기장의 잔디 문제는 잇따라 지적돼 왔다. 지난달 17일 광주는 광주월드컵경기장에서 일본의 강호 요코하마 F.마리노스를 7-3으로 격파했다. 하지만 당시에도 잔디 상태가 열악하다는 지적을 피하지 못했다. 당시 존 허친슨 요코하마 감독 대행은 "잔디에 문제가 있었다."고 강한 불만을 토로하기도 했다. 현재 광주월드컵 경기장이 선수들이 최상의

경기력을 보여줄 수 없는 상태로 잔디 관리에 허술함을 드러낸 셈이다.

열악한 잔디 상태로 광주FC가 홈 경기가 아닌 용인미르스타디움에서 치를 경우 사실 원정경기나 다름없는 어려움을 감수해야 한다. 광주와 용인간 거리는 총 230km가 넘는다. 광주 FC 이정호 감독은 기자회견 등을 통해 주기적으로 홈 경기장과 훈련장의 잔디 상태에 대한 아쉬움을 공개적으로 표현해왔다.

축구 잔디품종이 장마와 폭염 등의 한국 기후조건에 맞지 않은 점은 충분히 이해가 간다. 국제축구연맹은 축구하기 좋은 유럽식 한지형 잔디를 권한다는 점 때문에 애로사항이 있다. 다만 광주월드컵경기장이 잦은 외부 행사 등으로 인위적인 잔디 훼손은 없다는 것은 분명하다. 광주FC는 광주시민들이 사랑하는 축구단이다. 눈두렁 같은 잔디로 축구 선수들이 제 기량을 발휘한다는 것은 무리다. 충분한 성장한 잔디를 미리 생산 계약하고 훼손이 우려되는 행사들을 자제하는 등 적극적인 투자와 관심이 필요해 보인다. 경기장 잔디 하나로 광주 스포츠 위상이 실추되는 건 막아야 마땅하다



사진으로 보는 세상

지난 3일(현지시간) 이탈리아 밀라노의 예술품 감정·복원 전문 기관인 아르카디아 재단에 한 그림이 전시돼 있다. 이탈리아의 안드레아(60)라는 남성이 60년 넘게 집 안 거실에 걸려 있던 작품의 감정을 이 재단에 의뢰해 피카소 작품으로 보인다는 결과를 받아 냈다. 전문가들은 이 작품이 1930년에서 1936년 사이 완성된 피카소의 작품으로 보고 있다. AP/뉴시스

# 서석대

각종 선거때가 되면 표를 얻기 위한 정치권의 공약이 넘쳐난다. 퍼주기식 선심성 공약도 적지 않다. 이럴 때 종종 나오는 단어가 포퓰리즘(populism)이다. 포퓰리즘은 대중의 바람을 대변하려는 정치 사상이나 활동을 말한다. 사전적 의미로만 보면, 대중을 위한 정치처럼 들린다. 어원 역시 인민이나 대중, 민중을 뜻하는 라틴어 '포폴루스(populus)'에서 나왔다. 하지만 포퓰리즘이나 포퓰리즘을 추구하는 정치인들의 내면에는 대중에 영합해 정적을 펴고 권력을 강화하려는 의도가 숨어있다. 그래서 '민중을 선동하는 정치나 정치꾼의 행태'라는 부정적인 이미지가 덧칠해져 있다.

포퓰리즘은 권력과 대중의 정치적 지지를 얻기 위해 비현실적인 정책을 내세운다. 또 적과 친구를 구별하는 경향이 강하다. 대중의 적을 만든다.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은 일자리를 뺏는 주범으로 중국과 이민자를 상징했다. 그리고 이들을 적대시하는 정책을 밀어붙였다. 히틀러는 독일 민족의 부흥이라는 미명 하에 유대인에 대한 증오를 부추겼다.

계급 정체성을 중심으로 극단적 평등을 추구하는 행태도 보인다. 각종 보조금을 남발해 140%에 달하는 하이퍼



인플레이션을 낳은 20세기 남미의 페론주의가 대표적인 예다. 제2차 세계대전 후 노동자의 지지를 얻어 대통령에 당선된 페론 정권은 선심성 복지정책을 바탕으로 독재정치를 펼쳐 아르헨티나의 경제를 악화시켰다. 시작은 민중이지만, 그 끝은 전체주의 독재로 나아가는 모순을 안고 있다. 포퓰리즘은 민주주의에 독이다. 당장은 달콤한 꿀 같아 보이지만, 국민을 서서히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독약이 아닐 수 없다.

영광·곡성 군수를 뽑는 10·16 재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표심을 노린 현금성 공약이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민주당은 '영광사랑지원금 100만 원'과 '연간 100만 원 기본소득'을, 조국혁신당은 '영광행복지원금 120만 원'과 간병비 연 150만원 지원 공약을 경쟁적으로 내걸었다. 곡성군수 재선거도 민주당과 혁신당 후보가 각각 연간 50만 원 기본소득, 곡성행복지원금 100만 원을 공약했다. 누가봐도 무조건 이기고 보자는 선심성 공약이다. 재원 마련 방법은 있는지, 실현 가능한지 의문이다. 두 당의 '호남 쟁탈전'이 포퓰리즘식 '편의 전쟁'으로 과열되는 것 같아 씁쓸하다.

김선욱 서울취재본부 부국장

全南日報	시장·발행·편집인	이재욱	논설실장	이용환	편집국장	박성원
민주주의 구현 진실보도 실천 지역개발 선도	대표전화	(062)527-0015	경영지원팀	(062)510-0421		
	기사제보	(062)510-0331	광고영업팀	(062)519-0710		
	편집부	(062)510-0412	문화체육부	(062)510-0351		
	취재1부	(062)510-0380	온라인뉴스부	(062)510-0461		
	취재2부	(062)510-0394	사진부	(062)510-0391		
www.jnilbo.com m.jnilbo.com	정치부	(062)510-0340				
구독료 월 1만5천원 1부 800원	1988년 4월25일 등록번호 광주가-2호 (일간) 우편번호 61474 광주광역시 동구 제봉로 137					
구독신청 (062)510-0471	광고문의 (062)512-0100					
FAX (062)510-0436	서울지사 (02)725-8890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독자 의견을 환영합니다 (e-메일) webmaster@jnilbo.com